

## 가

본 연구는 18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 8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단어의 초기 획득과정과 이것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아 기질 특성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각 월령별로 어머니들은 한국의 정서-기술 단어 목록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고 표현 가능한 단어들을 체크하였다. 또한 자신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기질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평정하였다. 분석결과, 영아들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서단어의 수는 연령과 함께 증가되었다. 그러나 28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정서단어 표현능력을 보였다. 각 월령별로 최빈 정서단어의 내용분석에서도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이해와 표현의 차이가 적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영향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자녀의 행동에 정서적인 개입을 하는 태도, 그리고 영아의 긍정적 예견을 하는 기질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정서단어 이해와 표현 능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정서단어, 단어-이해, 단어-표현, 기질, 부모양육태도

18개월을 전후하여 영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

---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 육성과제(과제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아기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어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한다. 영아들이 한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아들이 이시기 즈음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어의 목록 중에는 일반적인 명칭이나 동작의 서술뿐만이 아니라 정서상태를 기술하는 단어들 또한 포함된다. 18개월 이후 만 3세에 이르기까지 영아들이 사용하는 정서단어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Dunn, Bretherton, & Munn, 1987). 정서단어의 증가는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개념의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정서단어의 경우 단지 단어의 개념적 이해의 차원에서만 연구될 소지의 것은 아니다.

정서를 기술하는 단어들은 일반적인 명사 단어들과 달리 구체적인 실물학습을 통하여 개념이 습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서 단어들은 외형적으로 관찰되기 힘든 개인의 내적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서단어는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하게 된 맥락에 존재하는 인과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단순한 관계성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서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서단어의 특징들을 볼 때, 정서단어는 언어의 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미-개념적 발달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Schieffelin & Ochs, 1986).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가 담당하는 역

할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정서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변화 및 종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하여, 정서의 관계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Campos, Mumme, Kermanian, & Campos, 1994). 즉, 정서표현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자기 보호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Dunn et al., 1987).

어린 아동들도 정서단어를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회적 기능으로써 사용한다 (Dunn et al., 1987). 더 나아가, 정서에 대한 언어적 표현 능력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과거 혹은 기대되는 사건과 행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또래와 공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형성을 고무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Bretherton et al., 1986; Howe, 1991; White, 1994; Wierzbicka, 1994).

이와 같이 정서단어는 자신의 정서를 언급하고, 그 정서에 대한 피드백을 이해하고, 사건과 정서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영아들의 정서 이해를 돋는 강력한 도구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Kopp, 1989).

원만한 사회적 관계형성과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정서 단어의 기능으로 볼 때, 정서단어의 출현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의 초기 발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 정서단어의 습득에 대한 연구는 영아의 사회적 기능들의 초기 발달을 연구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서단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린 영아들에게 있어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서단어는 외현적으로 관찰하기 힘든 한 개인의 내적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적상태는 때론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때로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황과 한 개인의 내적 상태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Beckwith, 1991). 즉, 정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념, 열망, 의도, 그리고 목표와 같은 정신상태와 외현적인 행동을 연결시키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이론들 안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Russell, 1989; Wellman, 1990). 때문에, 정서단어는 비록 영아의 초기 단어목록에서 발생빈도가 적은 수를 차지하지만, 그 의미의 인과성에 대한 이해는 다른 중립적인 단어들에 비하여 더 일찍 이루어진다(Bretherton & Beeghly, 1982).

정서단어를 표현하는 능력은 18-24개월 사이에 극적인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 18개월 경에 영아는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며 (Bretherton et al., 1986), 2, 3세에 이르면 자신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서단어를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특히, 2세 무렵에는 정서의 원인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며(Brown & Dunn, 1991; Dunn et al., 1987), 3세를 넘어서면서 아동들은 정서의 목적, 상황적 결과와 같은 인과관계의 맥락에서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Russell, 1990; Stein & Levine, 1989).

정서 관련 상황을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3-5세가 되면서 보다 정확해지고

복잡해진다(Bretherton et al., 1986). 36개월 정도의 유아는 정서의 선행요소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Dunn, Brown, & Beardsall, 1991; Russell, 1990), 상황의 정서적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Stein & Levine, 1989). 이처럼 영아기에 시작된 정서단어의 발달은 연령이 더 증가하면서 양적으로도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하게 발달해간다(Bretherton et al., 1986; Denham et al., 1992; Dunn et al., 1987; Wellman et al., 1995).

정서단어의 양적, 질적인 증가는 영아들이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서의 개인내적, 사회 맥락 내에서의 인과관계적인 의미들을 양적, 질적으로 발달시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은 언어와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설명될 수 있다. 영아들이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서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맥락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생의 초기인 영아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언어들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어휘를 습득하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용어들을 사회화시키고 그들의 정서적 경험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허락한다(Fivush, 1993). 더 나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정서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고취시킴으로써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rnstein & Tamis-Lemonda, 2001).

이러한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양한 영역의 영유아 발달에 유

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Eisenberg, Farbon, Schaller, Carlo, & Miller, 1991; Eisenberg, Farbon,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Saarni, 1989). 어머니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영어 의의 기질적 특성이다. 즉, 영어의 정서적 기질 특성이 긍정적일 수록 엄마의 행동이나 언어적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역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행동을 더 잘 유발시킨다(이미정, 1997; 홍계옥, 2001; Snow, 1998).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정서적 기질 특성이 어떻게 영어기 정서단어 획득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정서단어의 사회적 적응기능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의 영어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서단어의 초기 획득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언어획득과정의 이후 사회-정서적, 인지적 기능을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단어의 이해와 표현능력의 영어기 발달상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초기 정서단어 이해와 표현에 관련된 어머니의 역할과 영어 기질의 정서적 특성들의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영어기 정서단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2년부터 시작된 서울

대학교 한국 영어발달 연구센터의 전국규모 횡단연구에 참여한 영어들 중에서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연령범위에 해당되는 영어들로, 정서단어 연구를 위하여 다시 표집한 852명의 영어와 그들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의 지역별, 월령별, 성별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측정 도구

### 정서단어 이해와 표현능력

정서단어 이해와 표현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어목록의 제작은 Ridgeway, Waters, 그리고 Kuszaj(1985)가 연구한 방식에 따랐다. 영어들을 위한 정서 단어목록 제작을 위한 한국의 정서단어의 기초 자료는 박인조(2001)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박인조의 연구에서는 심리학 전공의 석사이상 연구원 19명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1998)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에서 형용사, 동사, 명사를 추려낸 다음, 전체 52275개의 단어들 중 ‘정서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총 435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 단어들을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19명에게 주고 친숙성 평정을 하게 하였으며, 7점 척도로 평정된 점수가 5.5 이상인 단어 63개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어들을 다시 만3세 이하의 영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 13명에게 주고 만 3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고르게 하였다. 그 결과 31개의 정서단어 목록이 만들어 졌다. 이 단어목록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표 1. 지역별, 성별, 월령별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지역	성 별	월령																			합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남	5	4	1	5	7	7	11	7	4	9	5	5	10	9	6	7	8	7	6	123	
서울 여	4	6	4	8	7	11	8	6	7	6	6	4	5	6	3	7	6	9	10	123	
합	9	10	5	13	14	18	19	13	11	15	11	9	15	15	9	14	14	16	16	246	
남	6	5	4	8	8	6	9	3	5	7	7	4	6	5	5	8	6	7	6	115	
경기 여	7	5	6	4	4	4	7	4	5	5	8	5	1	9	7	7	6	5	7	106	
합	13	10	10	12	12	10	16	7	10	12	15	9	7	14	12	15	12	12	13	221	
남	2	1	2	1	2	0	3	4	2	3	1	1	0	3	2	2	4	1	2	36	
충청 여	2	1	3	1	2	1	0	3	3	2	3	3	1	0	3	0	2	0	4	34	
합	4	2	5	2	4	1	3	7	5	5	4	4	1	3	5	2	6	1	6	70	
남	2	2	2	3	2	4	2	4	2	3	2	3	1	1	1	1	0	0	2	37	
호남 여	1	0	2	3	4	2	1	2	1	3	3	3	2	2	1	2	4	1	1	38	
합	3	2	4	6	6	6	3	6	3	6	5	6	3	3	2	3	4	1	3	75	
남	8	9	7	5	4	3	8	7	2	8	8	5	5	8	5	8	5	7	10	122	
영남 여	8	7	9	4	5	7	5	3	8	6	7	6	7	4	3	6	10	8	5	118	
합	16	16	16	9	9	10	13	10	10	14	15	11	12	12	8	14	15	15	15	240	
남	23	21	16	22	23	20	33	25	15	30	23	18	22	26	19	26	23	22	26	433	
전체 여	22	19	24	20	22	25	21	18	24	22	27	21	16	21	17	22	28	23	27	419	
합	45	40	40	42	45	45	54	43	39	52	50	39	38	47	36	48	51	45	53	852	

와 이 단어를 표현한 적이 있는가를 어머니들에게 체크하도록 하였다. 각 단어에 대한 평정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을 이해하거나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단어만을 기준으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단어표현에서는 단순히 어머니의 말을 따라하는 정도의 모방은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 정서적 기질특성

정서적 기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의 18개 척도 중에서 정서와 관련된 7가지 척도의 문항을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ECBQ는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TCBQ) (Goldsmith, 1996)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Rothbart

와 그녀의 학생들(2002)에 의하여 새롭게 개발된 유아기 기질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가지 척도들은 두려움(fear), 좌절(frustration), 고강도즐거움(high intensity pleasure), 저강도즐거움(low intensity pleasure), 긍정적 예견(positive anticipate), 슬픔(sadness), 불편함(discomfort) 등으로 각각의 척도들은 10-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원래의 문항들은 7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CBQ 하위척도의 Cronbach 계수는 두려움 .75, 좌절 .77, 고강도즐거움 .76, 저강도즐거움 .74, 긍정적 예견 .75, 슬픔 .74, 불편함 .75, 그리고 전체 척도는 .88이었다.

###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던 Schaef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의 척도들 중 5개의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척도에서 하나씩 하위 척도들을 골라 질문지로 만든 다음 어머니들에게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하위척도들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 중 근심에 관련된 문항 5개, 애정적 태도 중 정서적 개입에 관한 문항 6개, 의존성 조장태도 중 유아의 자율성에 관한 문항 5개, 긍정적 평가 태도 중 어머니의 지적수준 지각에 관한 문항 6

개, 그리고 통제적 태도 중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문항 6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BRI 하위척도의 Cronbach 계수는 어머니의 근심 .64, 정서적 개입 .65, 유아의 자율성 .21, 어머니의 지적수준에 대한 지각 .78,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 .76, 그리고 전체척도는 .77이었다.

### 연구 절차

각 월령별로 해당영아의 어머니들은 체크리스트와 설문지 형태로 만들어진 평정 지들을 집으로 개별 방문하는 검사자를 통하여

표 2. 영아의 월령, 성별에 따른 정서단어 획득점수의 평균 ( ): 표준편차

월령	정서단어획득점수					
	이해			표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8	12.30 (7.67)	12.41 (4.93)	12.36 (6.40)	1.70 (3.36)	3.27 (4.48)	2.47 (3.99)
19	12.62 (6.77)	14.11 (6.79)	13.33 (6.73)	1.19 (1.69)	2.37 (3.20)	1.75 (2.56)
20	10.50 (2.96)	12.25 (6.59)	11.55 (7.08)	0.81 (1.60)	3.46 (3.58)	2.40 (3.20)
21	11.77 (7.04)	12.10 (5.26)	11.93 (6.18)	1.68 (2.08)	4.85 (5.04)	3.19 (4.07)
22	14.35 (6.36)	13.59 (6.57)	13.98 (6.40)	3.78 (5.13)	6.91 (4.24)	5.31 (4.93)
23	11.10 (6.22)	12.64 (6.64)	11.93 (6.43)	0.85 (2.30)	7.40 (6.44)	4.49 (5.98)
24	11.88 (6.23)	15.38 (6.99)	13.24 (6.70)	7.09 (5.63)	10.57 (5.71)	8.44 (5.87)
25	13.12 (5.82)	18.67 (8.32)	15.44 (7.41)	6.32 (4.99)	13.61 (6.26)	9.37 (6.58)
26	13.53 (7.10)	11.54 (7.56)	12.31 (7.36)	6.67 (3.42)	9.79 (6.73)	8.59 (5.84)
27	13.83 (8.57)	15.55 (7.35)	14.56 (8.05)	8.10 (6.48)	11.00 (7.67)	9.33 (7.08)
28	13.35 (7.03)	18.22 (7.46)	15.98 (7.60)	10.52 (6.16)	13.22 (5.54)	11.98 (5.93)
29	18.94 (10.10)	13.47 (8.53)	16.00 (9.57)	13.94 (6.25)	13.38 (7.02)	13.64 (6.60)
30	14.50 (10.69)	13.31 (10.14)	14.00 (10.35)	12.82 (7.51)	13.50 (7.00)	13.11 (7.21)
31	15.77 (8.12)	14.95 (8.54)	15.40 (8.23)	13.19 (8.05)	12.24 (7.96)	12.77 (7.94)
32	16.58 (8.27)	15.82 (8.26)	16.22 (8.15)	11.32 (7.65)	12.88 (8.43)	12.06 (7.95)
33	15.77 (8.62)	15.77 (9.48)	15.77 (8.92)	12.77 (6.17)	15.10 (6.54)	13.83 (6.38)
34	14.30 (10.60)	15.82 (9.63)	15.14 (10.00)	13.70 (8.43)	15.61 (8.09)	14.75 (8.22)
35	18.64 (8.88)	16.39 (7.32)	17.49 (8.11)	14.50 (8.68)	16.83 (7.02)	15.69 (7.87)
36	15.77 (11.13)	15.93 (9.95)	15.85 (10.44)	18.42 (6.94)	19.63 (6.37)	19.04 (6.62)
전체	14.12 (8.32)	14.65 (7.92)	14.38 (8.12)	8.62 (7.91)	10.96 (7.88)	9.77 (7.98)

전달되었으며, 이를 완성한 후 다시 검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도록 하여 자료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각 월령별 한국영아의 발달 지표를 구하기 위한 연구 중 일부로 유의미한 월령차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각 월령별로 실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서단어 수의 증가와 내용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 정서 단어 획득의 월령차

정서단어 획득의 두 가지 점수요인별, 성별, 월령별 점수가 앞쪽의 표 2에 제시되었다. 먼저, 정서단어획득의 월령차를 보면,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두 가지 정서단어 획득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정서단어이해:  $F_{18,833}=2.10, p<.01$ , 정서단어 표현:  $F_{18,833}=30.01, p<.001$ ). 그러나 정서단어의 이해는 18개월에 약 13개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두고 증가한 것은 아닌 반면에, 정서단어의 표현의 경우 18개월에 약 2~3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28개월에는 약 12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증가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29개월을 즈음해서는 정서단어 수의 증가가 더욱 완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현상은 정서단어의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각 월령별로 정서단어의 이해와 표현을 비교하면, 18개월에서 28개월 사이의 월령에서는 정서단어이해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18개월:  $t=8.73, df=44, p<.001$ ; 19개월:  $t=9.86, df=39, p<.001$ ; 20개월:  $t=7.81, df=40, p<.001$ ; 21개월:  $t=7.68, df=41, p<.001$ ; 22개월:  $t=7.20, df=44, p<.001$ ; 23개월:  $t=5.40, df=44, p<.001$ ; 24개월:  $t=4.75, df=53, p<.001$ ; 25개월:  $t=5.40, df=42, p<.001$ ; 26개월:  $t=2.48, df=38, p<.05$ ; 27개월:  $t=4.16, df=51, p<.001$ ; 28개월:  $t=3.78, df=49, p<.001$ ), 29개월부터는 정서단어 이해와 표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단,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개월에서는 표현능력이 이해능력에 비해 유의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 $t=2.60, df=35, p<.05$ ), 이것은 부모들의 평정에서 나타난 우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 정서단어 획득의 성차

두 가지 정서단어 획득점수 사이에는 영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정서단어의 이해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단어의 표현에서는 여아들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t=4.34, df=850, p<.001$ ).

월령별 남여차이를 보면, 정서단어 표현에서 20~25개월 사이의 영아들은 여아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20개월:  $t=2.77, df=38, p<.01$ ; 21개월:  $t=2.71, df=40, p<.05$ , 22개월:  $t=2.22, df=43, p<.05$ ; 23개월:  $t=4.32, df=43, p<.001$ ; 24개월:  $t=2.20, df=52, p<.05$ ; 25개월:  $t=4.25, df=41, p<.001$ ), 다른 월령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단어 이해에서도 25개월( $t=2.58, df=41, p<.05$ )과 28개월( $t=4.87, df=48, p<.05$ )영아들은 여아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어떤 일관된 유형성을 시사하지는 못하였다.

표 3. 각 월령별 최빈 정서단어 목록

( ): 단어개수

월령	단어 목록	
	이해	표현
18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2)	
19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반갑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5)	
20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3)	
21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화나다. (13)	
22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난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4)	싫다. (1)
23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반갑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4)	
24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고맙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8)	
25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우습다. 즐겁다. 좋다. 화나다. (7)	고맙다. 무섭다. 미안하다. 사랑스럽다. 싫다. 재미있
26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밉다. 반갑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고맙다. 무섭다. 미안하다. 싫다. 재미있다. 좋다. (6)	고맙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예뻐하다. 재미있
27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화나다. (14)	고맙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사랑스럽다. 싫다. 재미있다. 좋다. (8)
28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슬프다. 신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1)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반갑다. 부끄럽다.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슬프다. 신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9)
29	걱정하다. 고맙다. 귀찮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속상하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짜증내다. 칭피하다. 행복하다. 화나다. (24)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사랑스럽다. 싫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짜증내다. 칭피하다. 행복하다. 화나다. (14)
30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칭피하다. 화나다. (14)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2)
31	고맙다. 귀찮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화나다. (19)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사랑스럽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3)
32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짜증내다. 화나다. (20)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1)
33	고맙다. 귀찮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화나다. (20)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사랑스럽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칭피하다. 화나다. (16)
34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칭피하다. 행복하다. 화나다. (18)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사랑스럽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재미있다. 좋다. 화나다. (15)
35	고맙다. 귀찮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짜증내다. 칭피하다. 화나다. (22)	고맙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사랑스럽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칭피하다. 화나다. (16)
36	걱정하다. 고맙다. 귀찮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짜증내다. 칭피하다. 행복하다. 화나다. (25)	고맙다. 귀찮다. 기쁘다. 놀라다. 무섭다. 미안하다. 밉다. 반갑다. 사랑스럽다. 속상하다. 슬프다. 신나다. 싫다. 심심하다. 예뻐하다. 우습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짜증내다. 칭피하다. 행복하다. 화나다. (23)

## 월령별 정서단어 획득의 내용

영아들이 습득한 정서단어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빈 정서단어 목록을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정서단어 내용 선정은 각 월령별로 50% 이상의 영아가 이해 가능한 단어 목록과 표현 가능한 단어 목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 연령에서는 영아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보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월등하게 많지만, 36개월에 가까워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와 내용에 차이가 적어졌다. 정서단어의 내용을 보면 ‘좋다’, ‘싫다’와 같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기술하는 단어와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의 발달이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재미있다’, ‘무섭다’와 같이 대상특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정서단어의 발달 또한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매우 어린 연령에서부터 이해 가능한 것에 반하여 영아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은 훨씬 뒤늦게 이루어져, 24개월에 가서야 50%가 넘는 영아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 ‘놀라다’, ‘신나다’, ‘화나다’와 같이 원인이 되는 특정한 사건들이 존재하는 단어들은 18개월을 전후하여서도 이해 가능한 것에 반하여 영아 스스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늦은 시기인 28개월을 즈음하여 가능하였다.

반면, ‘자랑스럽다’, ‘지루하다’, ‘부럽다’ 등과 같은 단어는 36개월 이전의 영아들에게 거의 드물게 나타나, 이러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서단어인

것으로 보였다. ‘자랑스럽다’는 36개월에 가서야 50%가 넘는 영아들이 이해 가능한 단어였다.

## 기질의 월령 차와 성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7개 기질 척도별로 영아의 성별과 월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고강도 즐거움 척도에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t=5.97$ ,  $df=848$ ,  $p<.001$ ). 각 기질의 월령별 차이를 보면 좌절( $F_{18,831}=1.88$ ,  $p<.05$ ), 긍정적 예견( $F_{18,830}=4.71$ ,  $p<.001$ , 불편함( $F_{18,829}=2.63$ ,  $p<.001$ )에서 유의한 월령차를 보였다. 좌절의 경우 27개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긍정적 예견은 36개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불편함은 35개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 척도의 점수가 월령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기보다는 각 월령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 그쳤다. 이 밖에도 고강도 즐거움( $F_{18,831}=1.56$ ,  $p=.063$ )과 슬픔( $F_{18,830}=1.51$ ,  $p=.080$ )이 근접한 수준에서 월령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역시 월령의 증가에 따라 일관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질의 특성이 월령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개인차에 의하여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어머니의 양육태도

5개 척도로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모두 28개 문항을 5점 척도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근심에 관한 문항 점수는 역 코딩하여 합산하였음) 척도 140점 만점의 기준에서 총점

이 합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평균 102.60(표준편차=8.71)점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저 74점에서 최고 129점까지 개인 간 점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양육태도의 총점은 자녀의 성별과 월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척도 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어머니들이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근심에 관련된 태도를 높게 나타내었다( $F_{18,849}=4.01$ ,  $p<.05$ ). 그러나 자녀의 월령에 따라 어머니들이 보이는 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월령별로 나누어 자녀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척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된 양상을

찾기 어려웠다.

### 영아의 정서단어 획득과 연령, 기질, 양육태도 간의 관계

영아의 정서단어 이해와 표현, 월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서단어 획득의 두 점수인 단어이해와 표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앞의 분석결과에서도 보았던 바와 같이, 단어이해와 표현은 모두 월령의 증가에 따라 점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나 단어표현에서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표 4. 정서단어 획득 점수, 월령, 성별, 기질특성,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단어이해	1.00															
2. 단어표현	.264 <sup>**</sup>	1.00														
3. 성별	.030	.145 <sup>***</sup>	1.00													
4. 월령	.169 <sup>***</sup>	.608 <sup>***</sup>	-.005	1.00												
5. 근심	.050	.035	-.065 <sup>*</sup>	.023	1.00											
6. 정서적 개입	.150 <sup>***</sup>	.137 <sup>***</sup>	-.051	-.066 <sup>*</sup>	.122 <sup>***</sup>	1.00										
7. 자율성 조장	.099 <sup>**</sup>	.072 <sup>*</sup>	.055	.020	.006	.118 <sup>***</sup>	1.00									
8. 지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178 <sup>***</sup>	.163 <sup>***</sup>	-.039	-.041	.296 <sup>***</sup>	.329 <sup>***</sup>	.128 <sup>***</sup>	1.00								
9.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	.096 <sup>**</sup>	.082 <sup>**</sup>	-.009	-.026	.019	.396 <sup>***</sup>	.149 <sup>***</sup>	.251 <sup>***</sup>	1.00							
10. 두려움	.043	.066 <sup>*</sup>	.024	.051	-.232 <sup>***</sup>	-.046	.010	-.033 <sup>*</sup>	.057 <sup>*</sup>	1.00						
11. 좌절	.051	.003	-.009	.051	-.228 <sup>***</sup>	-.087 <sup>**</sup>	-.004	-.061	.071 <sup>*</sup>	.386	1.00					
12. 고강도 즐거움	.050	.005	-.202 <sup>**</sup>	-.005	.017	.116 <sup>***</sup>	-.002	.146 <sup>***</sup>	.098 <sup>**</sup>	.012	.310	1.00				
13. 저강도 즐거움	.127 <sup>***</sup>	.131 <sup>***</sup>	.027	.031	.068 <sup>*</sup>	.250 <sup>***</sup>	.134 <sup>***</sup>	.200 <sup>***</sup>	.195	.166	.085	.136	1.00			
14. 긍정적 예전	.170	.271	.016	.255	.011	.121	.100	.129	.151	.157	.362	.423	.354	1.00		
15. 슬픔	.031	-.009	.022	-.044	-.199	-.033	.009	-.072	.057	.430	.679	.249	.163	.302	1.00	
16. 불편함	.137	.165	.051	.195	-.189	-.051	.037	-.026	.096	.553	.455	.132	.211	.314	.436	1.00

\* $p<.05$ , \*\* $p<.01$ , \*\*\* $p<.001$

정서단어이해를 보면, 어머니의 근심을 제외한 모든 양육태도 하위척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영아의 기질 중에서는 저강도의 즐거움, 긍정적 예견, 불편함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정서단어의 표현 또한 정서단어이해에서와 동일한 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영아의 두려움이 유의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첨가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보면, 어머니의 근심은 남아보다는 여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개입은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다시 영아의 기질

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즐거움이나 긍정적 예견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두려움, 좌절, 슬픔,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보면, 고강도의 즐거움은 남아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긍정적 예견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특성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영아의 기질적 특성의 하위 척도들 간에도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기초로 하여, 영아의 정

표 5. 정서단어 이해를 설명하는 변인들

Variables	B	t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지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32	.14	4.03 ***	.032	.030	.032	27.57 ***
월령	.21	.15	4.20 ***	.063	.060	.031	28.17 ***
불편함	.14	.10	2.72 **	.075	.071	.012	22.65 ***
정서적 개입	.34	.11	3.10 **	.087	.083	.012	20.01 ***
긍정적 예견	7.88	.07	2.00 *	.091	.086	.004	16.86 ***

\* p< .05, \*\* p<.01, \*\*\* p<.001

표 6. 정서단어 표현을 설명하는 변인들

Variables	B	t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월령	.87	.60	22.69 ***	.370	.369	.370	495.39 ***
지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32	.14	5.24 ***	.405	.404	.035	287.30 ***
성별	2.53	.16	6.19 ***	.430	.428	.024	211.35 ***
정서적 개입	.39	.13	4.69 ***	.446	.444	.017	169.47 ***
긍정적 예견	8.87	.08	3.09 **	.452	.449	.006	138.69 ***

\* p< .05, \*\* p<.01, \*\*\* p<.001

서단어 획득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들을 찾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정서이해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정서단어의 이해 능력은 어머니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영아의 월령,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아의 기질 특성, 어머니의 정서적 개입태도, 긍정적인 예견을 하는 영아의 기질 특성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sup>2</sup>=.087;  $F_{5,840}=16.86$ ,  $p<.001$ ). 이들 변인들은 약 8.6% 정도로 정서단어의 이해능력을 설명하지만, 중요한 예측변인 모델로써는 매우 높은 유의도 수준에 해당되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녀의 행동에 정서적인 개입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영아의 기질적 특성 중 불편함과 긍정적 예견 특성이 강할수록 영아들의 정서단어 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단어 표현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정서단어의 표현능력은 영아의 월령, 어머니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영아의 성별, 어머니의 정서적 개입태도, 긍정적인 예견을 하는 영아의 기질 특성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sup>2</sup>=.45;  $F_{5,840}=138.69$ ,  $p<.001$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변인들은 약 45%정도로 영아의 정서단어 표현능력을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지적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높으며 자녀의 행동에 정서적인 개입을 높게 할수록, 남아보다

는 여아가, 그리고 영아의 기질적 특성 중 궁정적인 예견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단어의 표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국 영아들의 정서단어 획득의 발달적 변화와 그 영향 요인들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단어의 이해와 표현능력도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서를 기술하는 단어들은 일반적인 단어들에 비하여 늦게 습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이 늦게 시작되는 것에 비하여 단어 수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져 29개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발달곡선이 그려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2세반을 넘어서는 연령에서의 단순히 단어수의 증가만으로 정서단어의 발달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2, 3, 4세의 영유아와 어머니의 정서단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 연구한 Cervantes 과 Callanan (1998)의 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측정이 정서의 명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단어수의 증가와 단어의 활용이 분리되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서단어의 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을 비교하여 볼 때, 이해능력보다 표현능력이 뒤늦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즉, 18개월을 전후 하여 2-3개 정도의 정서단어를 표현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각 월령집단 내에서 50% 가 넘는 영아들이 자신의 정서나 타인의 정서 상태를 명명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은

대략 만 2세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또한 29개 월이 지나면서 영아가 정서단어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져, 이후 월령의 영아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개념의 수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의 수가 비슷하게 발달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로 볼 때, 29개월을 넘어선 시기의 정서단어 발달 연구에서는 어휘수를 넘어선 실제적인 활용의 측면까지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여아들은 남아에 비하여 더 높은 정서단어 표현능력을 보였다. 이는 특히 20-25개월 사이의 유의한 성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표현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세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정서와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Cervantes & Callanan, 1998). 정서표현의 성차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상호작용을 성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Gleason, 1989; Fuchs & Thelen, 1988; Malatesta, Culver, Tesman, & Shepard, 1989). 특히 어머니가 18-24개월 딸과 상호작용 할 때 아동에 비하여 더 많은 정서단어를 사용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Dunn, Bretherton, & Munn, 1987).

넷째,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서단어와 표현할 수 있는 정서단어의 수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적어졌다. 정서 단어의 내용을 보면, 일차적인 정서를 기술하는 단어들에서 보다 인과관계

에 의존적인 이차적인 정서를 기술하는 단어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확장되어 갔다. 또한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지각하는데 있어 자신의 정서상태를 기술하는 자기 의식적 정서들은 18개월을 전후하여서도 이해 가능하였지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4개월을 넘어서야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랑스럽다’와 같은 자기 평가적인 정서단어는 36개월이 되어서야 이해 가능하였으며, 이것을 많은 수의 영아들이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단어의 획득에 있어서도 그 내용과 순서는 일반적인 정서상태 이해와 표현에서 나타나는 발달적인 순서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Sullivan, Lewis & Alessandri, 1992; Stipek, Recchia & McClintic, 1992)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영아들이 자기 평가적인 정서단어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비언어적인 정서표현과 마찬가지로 자기인식과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준들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정서단어획득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고려할 때, 영아의 월령의 증가라는 자연스런 발달의 결과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와 자녀의 행동에 정서적인 개입을 하는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아의 기질적 특성 중에서도 긍정적인 기대와 예측을 하는 기질이 정서단어의 이해나 표현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태도는 영아의 행동에 정

서적 개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단어의 획득에 있어서도 양육자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아에게서도 주변 사안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질적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부모-자녀 모두의 긍정적인 특성은 영아가 정서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단어의 이해는 영아의 불편함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서단어 표현에는 성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영아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질적 특성이 정서단어 이해에 중요한 변인임을 직접 연구한 연구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불편함의 호소는 어머니가 자녀를 달래고자 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영아와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단어의 표현에 성차가 기여한 사실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설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부모-자녀 양자간의 정서단어의 이해와 표현이 영아의 사회적 기능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부모와 영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이러한 기능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획단 연구 설계로 수

행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초기 정서 단어의 획득이 이후 정서조절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비롯한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이 종단적인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 를 바란다.

박인조 (2001). 한국어 감정단어의 분석: 감정단어 목록마련과 차원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

이미정 (1997).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Beckwith, R. (1991). The language of emotion, the emotions, and nominalist bootstrapping. In D. Frye & C. Moore(Eds.), *Children's theories of mind: Mental states and social understanding*, pp.77-95. Hillsdale, NJ: Erlbaum.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rnstein & Tamis-Lemonda, (2001).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 G. Bremne &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269-295. Blackwell publisher.

Bornstein, M.H. (2000). Infant into conversant:

- Language and nonlanguage processes in developing early communication. In N. Budwig, I. C. Uzgiris, & J. V. Wertsch (Eds.), *Communication: An arena of development* (pp. 109-129). Stamford, CT: Ablex.
- Bretherton, I., & Beeg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21.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Brown, J. R., & Dunn, J. (1991). "You can cry, Mum": The social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of talk about internal stat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237-256.
- Campos, J. J., Mumme, D. L., Kermoian, R., &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pp. 284-303.
- Cervantes, C., & Callanan, M.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88-98.
- Denham, S. A., Cook, M. C., & Zoller, D. (1992). "Baby looks very sad": Discussions about emotions between mother and preschoole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0*, 301-315.
- Dunn, J., Bretherton, I., &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s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139.
- Dunn, J., & Brown, J. R. (1993). Early conversations about causality: Content pragmatics, and developmental chang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 107-123.
- Dunn, J., & Brown, J. R.,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Dunn, J., & Brown, J. R., Slomkowski, C., Tesla, C., & Youngblade, L. (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2*, 1352-1356.
- Dunn, J., Bretherton, I., &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s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139.
- Dunn, J., Slomkowski, C., Donelanm N., & Herrera, C. (1995). Conflict,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s: Developments and differences in the preschool yea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303-316.
- Eisenberg, N., Farbon, R.A., Carlo, G., Troyer, D., Speer, A.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isenberg, N., Farbon, R.A., Schaller, M., Carlo, G., & Miller, P.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in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 Fivush, R. (1993). Emotional content of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In C. A. Nelson(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Memory and affect in development*, pp.39-77. Hillsdale, NJ: Erlbaum.
- Fuchs, D. & Thelen, M. H. (1988). Children's expecte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communicating their affective state and reported likelihood of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9*, 132-148.

- 59(5), 1314-1322.
- Gleason, J. J. (1989). Meaning of play: Interpreting patterns in behavior of person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21(1), 59-77.
- Goldsmith, H. H. (1996). Studying temperament via construction of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67(1), 218-235.
- Howe, N. (1991). Sibling-directed internal state language, perspective-taking, and affect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1503-1512.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Lewis, M., Alessandri, S. M.,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3), 630-638.
- Malatesta, C. Z., Culver, C., Tesman, J. R., & Shepard, B. (198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expression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4(1-2, Serial No. 219).
- Ridgeway, D., Waters, E., & Kuszaj, S. A. (1985). Acquisition of emotion-descriptive language: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norms for ages 18 months to 6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01-908.
- Rothbart and her students (2002).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 <http://darkwing.uoregon.edu/~maryroth/ibqdesc.html>
- Russell, J. A. (1989). Culture, script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In C. Saarni & p. L.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293-31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sell, J. A. (1990). The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1, 1872-1881.
-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s.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181-208).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effelin, B. B. & Ochs, E.(1986). Language socializ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 163-191.
- Snow, C.W.(1998). Infnat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Stein, N., & Levine, L. (1989). The causal organization of emotional konwledge: A developmental study. *Cognition and Emotion*, 3, 343-378.
- Stipek, D., Recchia, S., & McClintic, S. (1992). Self-evaluation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1), Mono 226 100.
- Sullivan, M. W., Lewis, M., & Alessandri, S. M. (1992). Cross-age stability in emotional expressions during learning and exti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58-63.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Bradford Books.
- Wellman, H., Harris, P. L., Banerjee, M., & Sinclair, A. (1995). Early understanding of emotion: Evidence from natural language. *Cognition and Emotion*, 9, 117-149.
- White, G. M. (1994). Affecting culture: Emotion and morality in everyday life. In S. Kitayama & H.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pp. 219-23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erzbicka, A. (1994). Emotion, language, and cultural scripts. In S. Kitayama & H.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pp.133-19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e acquisition of emotion words, temperament, and parenting attitude for ages 18 to 36 months

Minhwa Kim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ran S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ee-og Sim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You-kyoung Chang-Song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We investigated Korean infants' acquisition of emotion-descriptive words and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s and parenting attitudes with mothers of 852 infants (433 boys and 419 girls) in 19 age ranges from 18 to 36 months. The participant mothers rated on Korean emotion-descriptive vocabulary checklist, 7 sub-scales of Goldsmith's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and 5 sub-scales that had been extracted from Schaefer's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Korean infants at 18 months of age were able to use about 2 emotion-description words and to understand about 12 words. After this age, average numbers of emotional vocabularies that infants could express and understand continuously increased. The infants under 28 months gain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understanding of emotion words than expression. However, the infants at 29 months and higher ages not show different scores between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Also the expression of emotion-descriptive language had a gender difference. It was due to girls'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boys' in age range from 20 to 25 months. Stepwise regression was used to reveal the difference predictions between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words: understand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two infant temperament types (Discomfort, positive Anticipate), and two types of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ffective Involvement, positive Self-awareness of Intelligence) whereas expression was best related to age, sex, positive anticipate type, and sam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to above. The findings suggested that parenting with positive self-awareness and positive temperament of infants strongly influence early development of emotional language, although emotion words naturally increases with age.

*Keywords:* emotion words, words-understanding, word-expression, temperament, parenting attitude